

시간의 길이에 따라 나는

★ 글 | 이정우 철학아카데미 원장



나만의 휴식 전략

● 내 삶은 외형상 무척 단조롭다. 아침에 일어나 철학아카데미에 도달하면 우선 잡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읽기, 사유하기, 쓰기의 작업에 들어간다. 점심식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저녁에는 일이 있어서 또는 놀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집에 일찍 들어가 식구들과 지낸다. 그러나 지적으로는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평탄한 것은 아니다. 고도의 지적 집중을 요하는 텍스트들과 씨름하고, 난해한 철학적 문제들을 붙들고서 고투하고, 나 자신 끝없이 글을 쓰는 작업은 외형상의 단조로움과 대조적인 고도의 지적 노동과 긴장을 요구한다. 그래서 내게 휴식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는 거의 '전략'에 가까운 계획을 요하는 일인 것 같다.

● 내가 세운 휴식의 전략은 시간의 길이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뉜다. 첫째 — 매우 짧은 휴식. 이것은 작업 사이사이에 배치하는 휴식이다. 이것은 외형상 휴식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게는 매우 중요한 휴식이다. 그것은 작업하는 중간중간에 철학 이외의 책들을 읽는 것이다. 주로 문학, 역사, 사회 등에 관한 책들을 읽는다. 매우 추상적이고 어려운 철학 책들이나 자연과학 책

들을 붙들고서 작업하다가 '세상사'에 직접 관련되는 이런 책들을 읽으면 마치 청량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재충전이 된다. 때로는 책들 외에 신문, 잡지나 인터넷을 뒤지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거의 책들을 읽는다. 말하자면 나는 하루 종일 책들에 파묻혀 사는 셈이다.

둘째 — 조금 긴 휴식으로서 점심시간이 있다. 점심시간은 작업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다. 인사동에는 식당이 많아 여러 군데를 돌아가면서 식사를 한다. 식사를 한 후 인사동 거리를 산책하고 때로는 화랑에 들러 그림들을 본다. 때로(일주일에 한두 번) 공부에 좀 치질 때면 점심 휴식을 길게 잡아 몇 시간을 쉬기도 한다. 이때 가장 자주 가는 곳은 교보문고이다. 때로는 영풍문고를 가기도 한다. 교보문고에 들러 인문 코너 신간서적을 보고, 때로는 다른 코너들에도 들러 책을 뒤적거린다. 그리고 일본서적 코너에 가서 새로 들어온 서적들이 있는지 본다. 때로는 서구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서적들을 살펴보기도 한다. 대개 이렇게 책방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때로는 영화를 볼 때도 있다. 보고 싶은 영화가 별로 없어 자주 가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영화관에 들르는 것 같다.

최근에는 <트로이>를 재미있게 봤다.(2퍼센트가 부족했지만)

셋째 — 더 긴 휴식으로서 저녁시간이 있다. 저녁시간에는 결코 작업하지 않는다는 게 철칙이다. 가끔 급한 일이 있어 이 원칙을 깰 때도 있지만, 저녁에는 무조건 논다. 노는 종목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술이고 또 하나는 당구이다. 친한 사람들과 만나 술잔을 기울이고 때로 노래방에서 노래도 한다. 그리고 종종 당구장에서 당구를 친다. 주로 홍익대학교 앞에서 만나 선수용 다이에서 스리쿠션을 치는데, 최근에는 워낙 작업이 밀려서 자주 못가 안타깝다. 때로 사회적 이슈가 있어 광화문에 집회가 있을 때면 집회에 참석하기도 한다. 집단적으로는 잘 가지 않고 주로 혼자, 또는 몇 명과 함께 가서 참석한다. 내가 학생이었을 때 참석하곤 했던 집회들과는 무척 분위기가 다르다. 그래도 무슨 의무감 비슷한 게 있어 중요한 집회에는 꼬박 참석하고 있다. 내게 가장 길고 또 가장 소중한 휴식은 가족과의 주말휴식이다. 아내와 아이들은(상건이와 소연이)을 태우고 가깝게는 서오릉, 장흥, 자운서원, 하니랜드, 중남미 문화원, 임진각 등지를 다니고, 멀게는 강화도를 비롯한 휴양지들을 다닌다. 이 시간이 내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후지**